“보살계, 대승불교 수승한 수행법”

보살계연구회, 첫 학술대회
7월 21일 해인사 일원서 개최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법문
계율 전공 학자들 발표 이어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보살계연구회가 7월 21일 해인사 템플스테이 세미나실에서 ‘보살의 이상과 현실-인도에서 한국까지’를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결성된 보살계연구회(회장 이상엽)가 7월 21일 해인사 템플스테이 세미나실에서 ‘보살의 이상과 현실-인도에서 한국까지’를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인사 승가대학과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경남대 교양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의 기조법문으로 시작해 2부 인도·중국불교의 보살계, 3부 한국불교의 보살계 이해, 4부 보살계 연구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학술대회 첫 발표를 시작한 지묘 스님(일본 하나조노대)은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의 선(善)의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지묘 스님은 “〈보살지〉에서는 보살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기 위해 종성의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지경〉은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지만, 〈선계경〉에서는 초발심의 유무를 가장 중요시하며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발심의 내용과 성숙시켜야 할 대상을 통해 무종성 내지는 무성품의 유정까지도 포용하며 이타의 대상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없음을 알았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상민 연구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금제(禁制)를 수행하기 〈보살지〉에 나타난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하며 “계율은 고정된 내용과 형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구제라는 이타적 의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는 보살은 소승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이는 〈반야경〉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설해지는 일체법의 무자성(無自性), 공(空)이라는 교의에서 보았을 때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강 스님(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은 ‘성소수자에 있어서 출가와 수계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불교의 입장에 대해 논자는 출가는 허용할 수 없지만, 재가 신자로서 신행 활동에 대해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붓다는 율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십구의(十句義)’”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살계 연구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주제로 열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와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보일 스님, 학감 법장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사 스님 및 학인 스님들과 이상엽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기조법문에서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는 “참선 공부를 중요시했던 당시는 계율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보살계는 대승불교의 수행방법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살계연구회는 대승 사상이 발족할 때부터 존재했어야 한다. 이번 연구회 연구자들이 젊어 더 희망적이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 계를 연구하고 지키는 표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명경문화재단·日조동종, 문화교류 MOU

7월 23일, 쿠무다 콘서트홀서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이사장 주석 스님)과 일본 조동종(의장 다나카 세이겐 스님)이 문화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은 7월 23일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일본 조동종 친선 방한단-명경문화재단 MOU 협약식 및 추모음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명경문화재단과 일본 조동종은 양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종교 교류를 확대하며 유기적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에 앞장선다.

행사에는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과 이사진을 비롯해 일본 조동종 의장 다나카 세이겐 스님, 의장단 스님들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일본 조동종이 봉행하는 위령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겼다. 일본 조동종 의장 다나카 세이겐 스님은 약왕사에서 40년 동안 한국 강제 징용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지내고 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세이겐 스님께서 봉행한 위령재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협약식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부산 정각원, 지역 어르신 만발공양

7월 24일 영양식 800인분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이 장마와 폭염으로 지친 지역 어르신에게 영양식을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했다.〈사진〉

(사)부산 정각원은 7월 24일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정(情) 나누기 영양식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이번 만발공양을 위해 견강암 신도들과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 회원은 직접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800인분을 마련했다. 삼복더위와 장마철 습한 날씨에도 향공 스님과 정각원 봉사자들은 봉사를 쉬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영양식으로 더욱 건강해졌다며 감사인사를 연신 전했다.

이사장 향공 스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연등회, 소원등 후원금 대학동아리 ‘어썸’ 지원

7월 18일 기금 1000만원 전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7월 18일 부산대 학생회관 앞에서 ‘2568부산연등회 소원등 모금 회향식’을 개최했다.

부산연등회에서 시민들이 소원등을 달며 십시일반 전달한 후원금 1000만원을 취약계층 집수리 대학생 봉사단체 ‘어썸’에 지원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7월 18일 부산대 학생회관 앞에서 ‘2568부산연등회 소원등 모금 회향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사무총장 석산 스님 및 부산불교연합회 집행부 스님과 연합회 직원, 동아리 ‘어썸’ 회원들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젊은 대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게 너무나 뜻깊고 아름답다”며 “이번 성금은 부산연등회에서 시민들이 소원등을 달며 후원한 금액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다. 부산시민의 정성이 어썸의 멋진 자비나눔에 잘 회향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보국 어썸 회장도 “저희 어썸 동아리는 이번 해 10년차를 맞은 대학생 봉사단체이다”며 “그동안 활동하면서 물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1년 동안 넉넉하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수많은 부산시민들의 나눔과 정성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좋은 환경을 선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자비나눔 후원단체로 선정된 ‘어썸’은 2014년 창립된 부산연합 집수리봉사 대학생 동아리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으며 부산지역 391가구(6월 30일 기준)에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회원 수는 현재 130명이며 부산대를 비롯해 부경대, 동아대, 경성대, 동의대, 신라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등 부산지역 대학교 소속 학생들과 졸업생 동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부산연등회에서 1000원의 보시금을 받는 소원등 달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행사 후 부산불교연합회는 소원등 보시금 전액을 부산시민을 위한 자비나눔으로 회향했으며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며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매년 나눔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꼭 필요한 보시품을 선정해 전달하기를 지속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 생명존중 강좌

7월 23일 영광도서 문화홀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7월 23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했다.〈사진〉

강사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장기기증희망등록 필요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했으며, 복춘희 사단법인 생명잇기 사무총장은 ‘기증의 실제 과정 및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에 이어 수료증 전달 및 본부장 인사말이 진행됐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불자 및 대학생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편함과 아픔의 고통!
마이크로파로 통증 염증을 치유하세요~

극초단파
ARA-880 P

3분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내 주치의 의료기가 내곁에~

불면증, 관절염, 목, 어깨, 허리, 무릎, 좌골신경통, 치질, 무좀, 습진, 하지정맥, 비염, 천식, 변비, 설사, 비만, 위염,기관지, 위경련, 족저근막염, 당뇨, 중풍, 고혈압, 신종플루, 등 통증완화

▶고출력 극초단파 (250W)로 열감과 지속성이 뛰어남
▶치료 부위에 따라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가능
▶쉽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사용하기가 편리
▶제품의 경량화(30KG)로 이동하기 용이

상담문의
부성
T 010.3730.9413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